

축구

4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한일전 출전 앞둔 박주호 “투지 넘치는 플레이 필요”



박주호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 베테랑 수비수 박주호(34·수원FC)가 25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10년만의 한일 친선 A매치를 앞두고 홈팬들의 열기를 경계했다.

박주호는 23일 대한축구협회 회를 통해 “삿포로 때(2011년 8월 10일·한국 0-3 패) 홈 열기가 굉장했다. 열기에 눌리지 않고 버티면서 우리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는) 기술이 좋고 빠른 선수들이 많다. 잘 마크하면서 선제 실점을 안 하면 우리에게도 찬스가 나고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 개인이 아닌 팀으로 초반 분위기를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호는 ‘삿포로 참사’로 기억되는 10년 전 한일전에 출전 한 바 있다.

10년 전의 빛을 갼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2019년 동아시안컵 한일전(12월 18일·부산·한국 1-0 승)에선 이겼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했다. 우리도 기술 있는 선수가 많아 좋은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보르도)를 비롯한 해외파 핵심선수들까지 빠진 가운데 원정경기를 치르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은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박주호는 “어려운 상황인 걸 모두가 안다. 하지만 모든 스태프가 최대한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경기와 훈련을 도와준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격수 나상호(25·FC서울)도 “한일전은 선수들도 스스로 중요성을 알고 있다. 꼭 승리해서 돌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는 “(22일) 무사히 일본에 도착했다. 코로나19 과정대로 진행하니까 큰 불편함은 없었다”며 “소속팀 활약을 대표팀에서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작년에 일본 클럽(FC도쿄)에서 뛰었지만, 제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한일전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축구협회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25일 오후 7시20분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한일 친선전의 관중 제한이 1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은 5000명이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태극전사 “한일전 반드시 이긴다” 10년 만에 열린 한일 친선 A매치(25일 요코하마)를 앞두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유럽파 핵심 멤버들이 여럿 불참했지만 태극전사들의 필승의지는 강하다. 일본 입국 첫 날인 22일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훈련하는 축구국가대표팀.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코로나 시대 묵묵히 이겨내는 박항서 감독

“늘 제자 곁을 지킨 지도자로 기억되길…”

월드컵 2차예선·SEA 연속우승 도전
지난 2월 베트남행…격리만 6주 고생
“1년만 버티자 했는데…참 많은 일이
어린 선수들 투지로 기술 커버할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모두의 일상을 바꿨다. 그래도 곧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리란 희망이 있어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베트남축구국가대표팀과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동시에 이끄는 박항서 감독(62)도 지위저버린 아쉬운 시간을 뒤로 한 채 묵묵히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A매치가 줄줄이 취소되고, 선수단을 소집해 훈련하는 데도 제약이 많지만 박 감독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스포츠동아 창간 13주년을 축하하는 인터뷰에서 그는 “오히려 더 바쁘다. 당장 큰 무대가 기다린다.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6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고, 11월에는 동남아시아(SEA)



박항서 감독

게임이 예정돼 있다. 지금 철저히 준비해야 혼란이 덜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지내나?
“격리만 6주나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귀국해 격리를 했고, 잠시 시간을 보내다 2월 3일 베트남에 돌아왔다. 그런데 이곳 방역 지침이 훨씬 엄격하다. 지정된 숙소에서 2주 격리를 하고, 추가로 자택에서 2주 격리를 했다. 정말 힘들더라. 지금은 매일 베트남축구협회로 출근해 코치들(이영진·김한운·김현태·박성균 코치, 최주영 의무실장)과 미팅을 하고, 때때로 리그 경기를 관전하면서 선수들을 점검하고 있다.”

-하반기 일정이 상당히 빽빽하다.
“2019년 SEA 게임에서 60년 만에 우승했다.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래도 앞으로 많은 일정이 있다. 월드컵 예선을 해야 하고, SEA 게임 연속 우승에 도전해야 한

다. 특히 올해 대회는 베트남이 개최지다. 12월에는 스즈키컵이 기다린다. A대표팀과 U-23 대표팀 모두 바쁘다.”

-이미 베트남에서 많은 것을 알겠다. 그럼에도 계속 뛰는 원동력은?
“모두의 도움으로 지금의 자리에 왔다. 벌써 햇수로 4년차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은 내 지도자 인생에 꽃을 피운 시기다. 지금껏 살아온 삶의 60% 이상은 축구와 관련됐다. 축구 자체가 나를 뛰게 하는 힘이다. 기쁨과 실망이 항상 공존해도 그것조차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기부여다.”

-그간의 많은 업적 중 가장 의미 있는 무대는?
“중국의 폭설 속에서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했고,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4강, 아시안컵 8강, 스즈키컵 우승 등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모두 베트남 축구역사에 큰 의미가 있었다. 그래도 아쉬운 기억이 더 떠오른다. 지난해 U-23 챔피언십 예선 탈락이다. 바로 직전의 SEA 게임 우승에 도취됐고 자만했던 것 같다.”

-베트남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나?

“1년만 버티자”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었다. 외국 감독의 평균 수명이 8개월이더라. 그만큼 성공이 어렵다. 부임 후 첫 공식대회를 비교적 성공해 빨리 신뢰를 얻었다. 여기에 우리와 베트남은 의외로 비슷한 관습과 문화가 있더라. 특히 단결력이다. 위기가 오면 리더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 투지가 조금 부족한 기술을 커버할 만큼 대단하다.”

-항상 유소년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급성장한 경제만큼 인프라도 착착 갖춰지고 있고, 국민적인 축구사랑이 있다. 유소년들도 열심히 성장하고 있다. 관심과 투자,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이곳 축구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아주 긍정적이다.”

-그곳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홀로 이룬 결과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충분하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 베트남을 이끄는 동안 늘 최선을 다했단, 늘 선수 곁에 있단, 늘 노력한 지도자로 기억되길 바랄 뿐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올림픽 축구 조추첨 4월 21일 남 14개국 확정…잔여 2개국 30일 확정

2020도쿄올림픽 축구 조 추첨식이 다음달 21일 스위스 취리히의 국제축구연맹(FIFA) 본부에서 열린다.

FIFA는 22일(한국시간) “도쿄올림픽

축구 조 추첨을 4월 21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오후 5시) FIFA 본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FIFA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도쿄올림픽 축구 종목에는 남자 16개국, 여자 12개국이 출전한다. 남자는 한국을 비롯해 14개국이 이미 출전권을 획득했다. 개최국 일본과 더불어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 스페인(이상 유럽), 아르헨티나, 브라질(이상 남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아시아),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공화국(이상 아프리카), 뉴질랜드(오세아니아)의 참가가 확정됐다. 나머지 2개국은 30일까지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북중미·카리브해지역 예선에서 결정된다.

여자는 현재 10개국이 출전권을 확보했

다. 일본을 포함해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브라질, 호주, 잠비아,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이다. 4월 8일과 13일 벌어질 한국-중국의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 4월 10일과 13일 예정된 카메룬-칠레의 대륙간 PO 승자가 남은 2장의 티켓을 거머쥔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라이터크기 초소형 녹음기

데워없이 연속 260시간 녹음

일반대화, 강의녹음, 설교녹음, 증거취척 각광... 거짓말, 딥소리
사실왜곡 꼼짝마! 녹음을 생활화하면 문제가 술술 풀린다.

최근 테이프 없이 정장 260시간이나 녹음을 할 수 있는 라이터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가 출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 전문업체인 국제종합물산(주입문의:080-232-5866)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국내시장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 각광을 받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는 1회용 라이터크기만한 각종회의, 세미나, 강의, 수업, 증거녹음 설교녹음 등 사용처가 무궁무진해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반 대화녹음은 물론 전화 및 핸드폰도 매우 깨끗하고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카세트 녹음기나, 컴퓨터 등에도 음성을 옮겨 영구히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편집을 할 수 있어 사업가, 자영업자, 학생, 회사원, 종교인, 주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거래상 호주머니에 넣고 녹음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대화내용을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어 각종 계약 및 거래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중요한 구두계약이나 사업상 거래에

서 대화내용을 들었던 증인이 없으면 아예 계약내용을 전면 부인하거나 ‘딥소리’, ‘거짓말’, ‘오리발’, ‘사실왜곡’ 등을 해 당황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 이럴 때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제품은 증거녹음 강의녹음 등에 진가를 발휘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음성감지기능(소리가 나면 녹음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정지 대기 비밀녹음시 유용),반복재생기능,자동 녹음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르신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봄맞이 특가세일 중이다.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

무료전화 ☎080-232-5866 국제종합물산

‘국민MC 송해’도 사용하는 목초수액시트

자기전 발바닥에 붙이면 아침이 상쾌·가뽀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출시, 판매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종합물산에서 인기리에 시판하고 있는 목초수액시트는 자기 전에 양쪽 발바닥에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떼어내는 건강증진 보조제품으로 갈색으로 홍건하게 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돼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성분이 강화 된 이 제품은 ‘국민MC 송해’도 애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목초(木草)는 참나무를 쏙 굵은 가마에 넣어 구우면 수목내부의 엿기스가 증발하여 연기와 함께 나오게 된다. 이것을 급속 냉각 일정기간 지난 후 정제과정을 거친다. 목초수액시트를 발바닥에 붙이는 이유는 발은 전신이 투영된 반사구나 경혈이 모인 장소로서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신체의 어떤 부위보다도 집중적으로 분포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 인간은 땀, 소변, 대변,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 있으나 그 불필요한 것들,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발에 쌓인다는 것이 발 건강요법 전문가들의 말이다.

월간 ‘주부생활’ 2001년 10월호에서 발 관

리 전문가 김수자 씨에 따르면 “건강한 몸과 발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 며 “발은 자각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관리하면 건강증진에 좋다” 고 설명했다. 이 제품의 사용법도 매우 간편하다. 자기 전 양쪽 발바닥에 1장씩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떼어 내면 되고, 발바닥외의 무릎, 팔, 다리, 어깨, 허리 등에는 24시간 붙였다가 떼어내면 된다. 이 제품은 목체노종자, 장시간운전자, 수면이 부족한 사람, 몸이 무거운 사람,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가사일이 많은 주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미용실서 일하는 사람,수험생, 연로한 어르신,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등에게 새로운 건강관리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판매원의 한 관계자는 “이 제품은 절대 약약품이나 의학외품이 아니며 공산품이지만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향해달라” 고 밝혔다.

농협 : 511-12-185903(예금주 : 고봉석)

문의 ☎ 063-232-5855 국제종합물산

돈 오늘 당장 쓰실분!!

신용불량자 요금연체자

갤럭시 5G 폴드2 할부개통 가능
아이폰 12 MAX

휴대폰 현금

당장 쓰실분

현금 100~390만원
즉시지급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백화점 상품권증정
010-2254-8808
전국 출장 가능 (제주도 가능) (주)참바론통신